

70대 이상 인구 20대 첫 초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70대 이상 인구 631만명으로, 20대 619만명 첫 초월해 65세 이상 인구 18.96%,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초교 입학 예정 인구 36만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 미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 수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보다 0.22%(11만3709명)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7386명) 인구보다 많았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은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5.00% 증가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6%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인구가 전체에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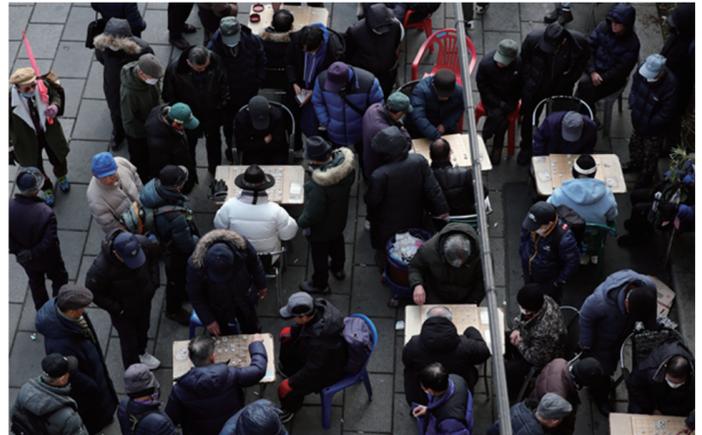
이미 17개 시도 중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등 8곳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6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75개 시 지역 중 35곳이 초고령사회, 32곳은 고령사회, 8곳은 고

령사회에 해당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3593만1057명으로 전년보다 0.96%(35만9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728명으로 1.45%(26만3240명) 줄어 들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6세 인구는 36만4740명으로 전년(41만3162명)보다 11.72% 줄어든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별 선거인수는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60대(17.19%), 70대 이상(14.24%) 비중이 각각 2.54%포인트(p), 1.57%포인트(p)씩 증가했으며, 10대~50대 비중은 감소했다.

세대수는 2391만4851세대로 전년보다 0.88% 증가했다. 하지만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해 평균 세대원수는 전년보다 0.02명 줄어든 2.15명을 기록했다.

특히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6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이다. 성별로 보면,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더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더 많다.

서선욱기자



의자 사라진 지하철 4호선 열차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를 위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의자 없는 칸 시범운영이 시작된 10일 오전 사당행 지하철 4호선 의자 없는 칸에 시민들이 탑승해 있다.

“5·18은 북한군 침투 폭동” 허위 기사 작성한 기자 고발

지난해 6월 15일부터 6개월 동안 28회 걸쳐 작성

5·18기념재단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사를 반복적으로 써온 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매체 A사 소속 기자 B씨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A사를 통해 지난해 6월 15일부터 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5·18진실 찾기’라는 제목 아래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기사를 작성해온 혐의다.

B씨는 해당 기사를 통해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사

실로 드러난 북한군 침투설을 인용해 진실인 것처럼 속였다.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믿는 보통 시민들은 북한의 책동에 기망당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5·18 왜곡·폄훼 시도에 줄곧 인용되는 5·18 북한군 침투설은 국가 조사 기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를 통해 사실 무근인 것으로 이미 결론났다.

조사위는 5·18 당시 보안사령관을 맡고있던 전두환이 5·18과 북한군을 연계시키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이같은 내용을 대국민 정례 보고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또 보안사와 군이 전씨의 왜곡 발언을 뒷받

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5·18 관련 기록을 조작, 1988년 정문회에 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5·18 왜곡·폄훼 세력이 북한군 침투설에 주로 인용하는 간첩 이창용 사건에 대해서도 이씨의 당시 임무가 지하당 구축이라는 점이 확인된데 따라 5·18과의 연관성이 사라졌다.

재단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가 인터넷 상에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 허식 인 천시의장이 지난 2일 해당 매체의 신문을 시의회 의원실에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단 관계자는 “온라인을 비롯해 여전히 반복되는 5·18의 왜곡·폄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권기자

맨홀 아래 추락 70대 여성...배관 붙잡고 버텨 무사 구조

소방당국 신고 접수 28분 만에 구조

맨홀 아래 추락한 70대 여성이 배관을 붙잡고 버틴 끝에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10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2시38분께 북구 용봉동 한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길에서 70대 여성 A씨가 오수로 가득찬 맨홀(지름 약 1m)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자가 정확한 사고 위치를 알지 못한 탓에 조를 나눠 인근 골목길을 수색,

현장 출동 8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수심 3m이상 추정되는 오수가 차있는 맨홀 아래에서 기동처럼 생긴 배관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A씨는 119에 의해 신고 접수 28분 만에 무사히 구조, 건강 상태도 양호해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